Industry p/9
대기업 지난해 연봉 공개
metro
2015년 4월 1일 수요일
Sports p/21
'김기태 용병술' 빛 발했다
거문도 참돔의 눈물
이마트, 어민 돕는다며 대대적 홍보… 헐값에 사서 두배 장사 p/12
납품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어민·소비자 농락"
현대 모비스 "비오는 날엔 투명 우산을"
매일유업, 가정있는 직장
"워킹맘 위한 행복 일터"

# 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 박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의혹 밝혀질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고문경찰관 강진규 조한경 반금곤 황정웅 이정호 등 여야 증인 9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 증인으로는 고문경찰관들 외에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수사에 일부 가담한 최환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단장이 포함됐다. 여당 측 증인은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 1명이다.

야당 측 참고인으로는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부영 전 의원,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등 4명이 선정됐다. 여당 측 참고인은 이재순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관, 박 후보자의 동료검사였던 안유대 변호사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는 당시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2015 프로야구는 메트로신문과 함께! 31일 수원 KT위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린 경기도 수원 KT위즈 구장에서 야구팬이 프로야구 특별판으로 제작된 메트로신문을 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신형백신 접종해도 구제역 발생

기존 백신의 효능이 문제되자 새로운 백신주를 추가한 신형백신을 도입했지만 구제역 발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O 3039 백신주가 포함된 신형백신을 접종한 749개 농가 중 26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백신 접종 후 통상 2주에서 늦어도 3주 후면 항체가 형성된다. 26개 농가 중 10곳은 접종 후 2주가 넘거나 3주가 넘은 농가들이다. 특히 이 중 8개 농가가 구제역 발생 돼지에서 항체가 형성됐다. 신형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신 매칭율은 물론이고 백신품질 불량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발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안동주 등에 대한 백신주 개발을 마쳤음에도 해외위탁을 통한 제품생산의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해외위탁 생산계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한국형 백신을 도입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bhsong@

출입금지 방역본부

## "석유공사, 자원외교 손실액 축소발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매각한 캐나다 하베스트 날(NARL) 정유사업의 매각 손실액이 알려진 1조7000억원이 아닌 1조94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31일 국회 자원외교 특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날의 원금 손실은 1조7228억원이지만 사업 기간에 투자된 자금의 이자 등 2248억원의 금융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비용은 날에 투자금이 들어간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공사채 평균 이자율 3.2%를 적용한 결과다. 공사채 금리가 5.1%로 가장 높았던 2009년에 날 총투자금의 60%가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투자손실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산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덮으려는 것"이라며 "잘못된 투자에는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목소리 커진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 "서민 지키는 길 철새 아냐"

### 정동영 '철새' 비난에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반박

철새정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동영(사진) 전 의원은 31일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노선"이라며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철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관악을 4·29보궐선거 출마 선언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철새정치인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노선과 관련해 "민주주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은 가난한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세력을 만들고 그 정치세력이 [illegible] 복지국가를 만든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그럴게 가야한다"고 했다.

자신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고통 받고 죽어가는 사람 천지인데 여야 정치권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부르고 부둥켜안고 서로 눈물 흘리고 있지 않냐"며 "같은 기득권 정치세력"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는 한 군데(관악을)이지만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며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 뒤에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호남의 광주 서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 후 국민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선거 후에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모임에 천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병형기자 bhsong@

# 제2세월호 닥치면… 당장 구조부터 문제

## 정부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내놨지만 헬기 노후화·부족 등 심각

오는 16일은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1주기다.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계속되는 재난사고 대비의 일환으로 지난 30일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내놨다.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장비를 확충해 현장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인력 구조용 헬기부터가 문제다. 해상사고 구조작업에서 헬기의 중요성은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헬기는 육상에서도 중요한 존재다.

**◆ 1000만명 사는 서울에 구조헬기 단 3대**

지난 13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응급환자 이송위해 출동했던 인력구조용 헬기가 추락하면서 4명이 순직했다. 이 헬기는 세월호 참사 때 제일 먼저 출동해 18명의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먼저 소방청 소속 인력구조용 헬기는 27대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1000만명이 사는 서울의 경우 인력구조용 헬기는 단 3대 뿐이다.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는 단 한대도 없다. 인력구조용 헬기 부족으로 응급 환자 긴급 이송 때는 경찰 헬기나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상 악화되거나 야간엔 아예 운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명 구조용 전문헬기가 아니라 전문 의료장비가 탑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노후화 심각…軍 절반이 20년 넘겨**

소방 내부 기준에 따르면 노후 헬기를 교체하는 기준은 20년이다. 하지만 비싼 교체비용으로 인해 헬기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헬기를 띄울 수 있는지 검사하는 감항검사도 연 1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27대의 소방헬기 중 20년 이상 된 헬기는 6대다. 내후년이면 20년이 되는 5대를 포함하면 반 가까이가 노후장비다. 2000년 이후 헬기 추락사고는 총 17번으로 4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노후 헬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 수리 어려움…지자체마다 기종 달라**

전문가에 따르면 인명 구조용 헬기 정비는 통상 3~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교체해야 할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도 쉽지않다. 대부분의 인명구조용 헬기는 외국에서 맞춤제작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견진의 경우는 들여온 나라에 보내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른 종류의 헬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현재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헬기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를 하는 동안 응급환자 발생하면 타 지자체에서 인명구조용 헬기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강원도 소방본부 1항공구조대 헬기는 진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지난해 7월 17일 복귀 중 광주광역시 도심에 추락한 바 있다.

**◆ 대당 100억이원…지자체 비용부담 손사래**

현재 인명구조 용도 소방헬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맞춤 제작, 1대당 100억여원을 호가한다. 격납고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면 헬기 1대 도입을 위해선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11월 도입되는 충남도의 다목적(인명구조용) 소방헬기의 경우 구입비로만 국·도비 총 200억 원이 소요됐다.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를 운용 중인 여타 광역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대 당 매년 4억~5억원, 보험료 1억~5억여원을 헬기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헬기 구입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비싼 헬기 구매비용과 운용비용을 모두 지자체에 부담하는 구조로는 헬기 사용의 높은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부끄러운 김무성**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2층 강당에서 열린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 4·29 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약발표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새줌마 복장 퍼포먼스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있다. /뉴시스

## "정부, 세월호 1주기전 인양 입장 밝혀야"

###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김무성) 당대표나 저나 (세월호)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농성 중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면담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현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세월호 1주기인 다음 달 중순까지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면담은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1일 면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 등 세월호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시행령안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영역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 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를 넘긴 4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기술검토가 당초 알려진 3월 말이 아닌 4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1일 메트로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말 검토를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4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추가되면서 검토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를 구성하고 인양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2월 말에 마무리했다. 현장조사 자료가 TF로 넘어간 시점은 3월 초다. 그는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까, 현장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며 "그 전에는 추정 자료 등을 써서 일부 초급적 시뮬레이션도 하고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TF에서는 선체구조와 선체 무게등 자료를 통해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잠수작업조건, 적당한 작업날씨 등은 물론이고 실종자 수습이 가능한지, 인양과정에서 선체파손 문제가 발생할지, 실종자 시신이 유실될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는) 인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인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몰 원인 규명이 인양의 목적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상규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TF는 검토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에 길어진다면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현정기자 hjk1@

**배식봉사하는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인천 서구 완정로 검단노인회관에서 4·29재보선 인천 서구·강화을에 출마한 신동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당 등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면 지원금

서울시가 집 앞마당이나 자투리 땅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지원금을 준다.

담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면 800만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200만원이 든다.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할 때보다 80%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집 앞마당이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을 기준으로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을 시가 지급한다. 그 이상 1면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을 위해 담을 허문 자리에는 높이 1.3m 이하의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주택가와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준다.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며 주차장 수익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중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담을 허물어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못할 때는 사업비를 환수한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 Support Fund for Making Parking Lots With Spaces of Odds and Ends

Seoul will support funds to any citizens who make parking lots in front of their property or left over land. It costs 8 million won to tear down one side of the wall and make a parking lot and 2 million won to make it in the left over land. You can save 80% more compared to the construction fee needed to make a public parking lot. If you make parking spaces in your property or any open spaces, Seoul will give 8 million won for one side and 9.5 million won for two sides. And every extra sides you add, 1 million won will be [illegible] 500 thousand won maximum. For those who may worry about privacy due to the breaking down of walls, Seoul allows them to build 1.3 meters high fences. 2 million won will be given to those who make parking lots in their residential area or left over land and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will manage the area. The parking spaces are prioritized for residents and they can either choose to make profits or be get property tax exemption. Parking spaces which had the walls torn down must be maintained for more than 5 years and left over parking spaces must be maintained for more than a year. And if it cannot be maintained, the support fund will be redempted. Any questions can be asked to Traffic Department of the autonomous district.

/번역: Chris Kim



# 쌍둥이의 '기적'

### 미국·프랑스 25년만에 재회 지구·우주에서 1년간 이별

한국에서 미국과 프랑스로 각각 입양되어 25년만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쌍둥이와 지구와 우주에 각각 떨어져 1년간 생활하며 기적을 만들어 낼 쌍둥이가 화제다.

첫 번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낸 주인공은 한국에서 미국과 프랑스로 각각 입양된 후 25년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서맨사 푸터먼(27)과 아나이스 보르디(27).

이들은 한국 부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 생후 3개월 때 입양되어 서맨사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로, 아나이스는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로 활약중이다. 아나이스는 2013년 친구로부터 "유투브 영상 속 여자가 자신과 매우 닮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서맨사에게 연락했다. 이러한 기적인 상봉 과정과 이후 2년간 이들 생활의 변화는 다큐멘터리 '트윈스터'로 제작됐다.

나사 소속 쌍둥이 우주비행사인 스콧 켈리(51)와 마크 켈리(51)는 앞으로 1년 간 또 다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스콧을 포함해 3명의 우주비행사들을 태운 우주왕복선 소유스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전 1시 42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이들은 1년간 우주정거장(ISS)에서 지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시에 이들의 도전은 우주비행 역사상 가장 장시간의 우주 체류가 된다. 이들은 2016년 3월 지구로 귀환한다. 의료진과 나사(NASA)는 1년간 무중력 상태의 ISS에서 보내는 스콧과 그의 쌍둥이인 마크의 신체적·정신적 노화 속도를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김서이기자 rsdeun27@

'에드워드 M. 케네디 연구소' 개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3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에드워드 M. 케네디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오르다 고(故)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레기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 아베 일본 총리 보고 있나

### 美 국무부 "위안부는 여성 매매 행위"… 합동연설 취소 '우려'도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암초를 만났다.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 희생자'로 부르며 교묘하게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미국 국무부가 다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性)을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한 행위(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라고 규정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2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성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위반"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인신매매' 처럼 주체와 목적이 없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사건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한일) 양국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이것이 양국과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사 문제를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원 '잔혹행위 분명히 인정하라'**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게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도 "아베 총리는 과거 일제가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중 저지른 잔혹행위를 확실하고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뉴욕한인 연합뉴스에 전달한 서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묵살하려는 행위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일본 정부의 뉘우침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추진했다가 미 하원의 반대로 실패했던 전철을 아베 총리가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채석원기자 kelae@metroseoul.co.kr

LIG손보 품은 KB금융, 앞으로 과제는?

# 자본확충·LIG투자證 문제 해결해야

지지부진하던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KB금융은 지주사 중 유일하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를 모두 갖춘 종합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확충과 LIG증권 매각 등 과제도 산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과 LIG손보는 지난 25일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 조정에 합의했다. 매매대금은 6450억원으로 미국법인의 손실에 따라 당초보다 400억원 정도 낮아졌다.

KB금융은 조만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로부터 LIG손보 미국지점 취득에 따른 금융지주회사(FHC) 자격을 취득해 인수작업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KB금융은 이번 합의에서 인수 지연에 따른 이자 250억원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각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을 LIG그룹이 수용했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업계에서는 LIG손보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LIG손보에 대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8% 증가한 693억원을 전망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훼손되었지만 올해에는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로 KB금융의 연결총자산도 325조3000억원으로 증가, 신한금융(336조원)에 이어 전체 금융지주그룹 2위로 도약했다. 또 손보사 인수로 인해 은행에 편중된 자산구조도 86.7%에서 80.4% 감소해 사업다각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LIG손보의 경영 정상화와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1년 내에 추가적인 지분 인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인수를 승인할 당시 KB금융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지분인수를 약속했다. 현재 보유한 지분 19.47% 외에도 10.53% 이상을 매입해야 안정적인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도 골칫거리다. 원칙상 금융지주사가 손자회사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B금융은 향후 2년내에 LIG투자증권을 자회사로 올리든지 매각해야만 한다.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하면 기존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해야만 한다. 이 경우 지난해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합병과 같이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또 금융투자업 관련 라이선스가 서로 겹치고 합쳐도 자기자본 8000억원 규모로 업계 중위권 수준에 불과해 합병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마무리된 점은 KB금융과 LIG손보 모두에게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서도 "LIG손보측에서는 KB금융과의 화학적인 조직 통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금융 입장에서도 추가지분인수와 지급여력(RBC)비율 인상을 위한 자금투입, LIG투자증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SNS로 지인 응원하면 류현진 싸인볼 제공" NH농협은행은 31일 류현진 선수와 함께하는 대국민 응원 이벤트 세 번째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펼치는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참가 희망자는 농협은행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사연을 응모하면 된다. /농협은행 제공

## 2월 산업생산 2.5%↑… 근 4년來 최고

2월 산업생산 증가세가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전월 대비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해 9월(-0.7%), 10월(0.4%), 11월(-0.1%), 12월(1.3%), 올해 1월(-2.0%)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2월의 증가세(2.5%)는 4.0%를 기록한 지난 2011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1월의 큰 감소세(-2.0%)에 따른 기저효과와 설 명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산업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2.6% 늘면서 두달만에 반등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2.3%), 기타운송장비(-3.0%)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4.6%), 반도체(6.6%)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 전보다 2.6%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4%포인트 상승한 75.5%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2.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0.4%)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3.7%)와 금융·보험업(2.9%) 등이 늘어 전달보다 1.6% 증가됐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는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3.9%)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2.8% 늘었다. 지난해 8월(2.8%) 이후 최대치 증가다.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줄었지만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와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달보다 3.6% 증가했다.

# 금융 규제 정보 한눈에

### 금융위 '민원포털' 운영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 과제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요청·회신하는 채널 역할도 하게 된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법무실 등 대표창구에서 요청서를 작성하면 금융위 총괄부서에서 모든 요청건을 일괄 접수한 후 소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후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게 된다.

아울러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사의 의견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법령과 규정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면 중복질의나 과거 회신내용 재질의 등 금융당국의 검토필요성이 낮은 과제를 최소화해 행정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 건에 대해 금융당국 간의 소관을 미루는 행태를 근절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 하나금융, 전자지갑 릴레이 송금 '기네스북 등재'

하나금융그룹은 31일 전자지갑을 활용한 '릴레이 송금 퍼포먼스'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 스마트 홍보대사' 30명과 고려대학교 학생 170명 등 총 200명은 하나은행의 전자지갑 서비스인 '하나N월렛'을 통해 집단 릴레이 송금을 완료했다.

'하나 N월렛'은 스마트폰 전용 선불충전형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 없이도 간편하게 개인간 송금이 가능하다. 또 주요 편의점 등 각종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전국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스마트폰만으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하나금융은 기네스북 등재를 기념해 고려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3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전자지갑을 통한 집단 릴레이 송금 퍼포먼스는 금융과 IT기술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최초의 도전으로 기네스로부터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은 고객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 개발을 지속하여 핀테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이삼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서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만 했다하면 '홈런'

### 13개 단지 중 12곳 순위 마감, 5곳은 1순위서 끝나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선보이는 신규분양 단지들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앞으로 3년간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되는 데다 민간택지와는 달리 분양가상한제도 계속 적용돼 분양가 인상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3개 단지 중 12곳이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 '예미지' A11블록 예미지' 등 4곳은 수십 대 1의 경쟁률과 함께 1순위에서 마감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도 평균 27.6대 1로 1순위서 모집가구수를 채웠다.

이어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1LA1블록과 1LA2블록', '한강센트럴자이2차'는 2순위에서 마감됐다.

또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3차', '호매실 호반베르디움2차', '시흥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3차', '청라2차 골드클래스'는 3순위서 청약을 마쳤다.

시흥 배곧신도시 첫 임대전환 분양아파트 '어지더원'만이 810가구 모집에 절반에 못 미치는 377명이 청약해 0.46대 1의 저조한 청약률을 보였다.

이 같은 택지지구 아파트의 인기는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영향이 크다.

공공택지지구는 주거시설과 함께 편의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계획도시로 대체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당분간 지정이 중단되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거나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몸값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1분기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마감률을 보인 화성 동탄2신도시 전경 /LH 제공

공공택지 아파트의 인기는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 서창2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알짜로 꼽히는 택지지구서 분양이 대기 중이다.

인천 서창2지구에서는 대림산업이 4월 중 10블록에서 전용면적(이하 동일) 84㎡, 835가구로 구성된 'e편한세상 서창'을 분양할 계획이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 등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진행된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는 GS건설 '미사강변리버뷰자이'가 4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91~132㎡ 555가구 규모다. 일부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미사리조정경기장, 송파공원, 선동둔치체육시설 등이 가깝다.

이어 5월에는 LH가 미사강변도시 A2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1401가구를 공급한다. 51~84㎡로 구성됐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2018년 개통예정) 개통역과 중심상업지구, 초·중고 예정부지가 인접하다.

경기 북부지역에 조성 중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대림산업, 롯데건설과 손을 잡고 4월 첫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B4블록에서 'e편한세상' 1615가구, B2블록에서 '자연&롯데캐슬' 1186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두 단지 모두 74~84㎡로 이뤄졌다.

2016년 신분당선 개통을 앞둔 광교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6차' 446가구를 분양한다. A6블록에 들어서며 60~85㎡로 구성된다.

/박선옥기자 pso1005@metroseoul.co.kr

## 삼성화재, 女질환 100세 보장 '여성을 위한 W(더블유)' 보험

삼성화재는 최대 100세까지 여성 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여성을 위한 W(더블유)' 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유방·자궁 등 여성의 주된 관심 질환을 보장하는 여성전용 상품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먼저 물혹(유방선종·자궁근종·자궁/난소염 등) 조기 여성질환 수술비를 제공한다. 또 유방암, 자궁암 진단비와 수술비도 보장한다.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유방 절제술, 자궁적출 수술비 보장을 통해 수술 후 치료비도 보장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병(심혈관·뇌혈관·간/폐질환·신장질환)과 5대 특정질환(갑상선·녹내장·위십이지장 궤양·결핵·신부전)으로 수술하기다 입원할 경우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

이어 일정 가입조건 만족 시 가전제품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후 90일에서 4년차까지 에어컨, 세탁기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리닝 서비스를 1회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15년 재가입형으로 재가입을 원할 경우 보장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무심사 인수가 가능하다. 단 재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보험은 여성을 위한 다양하고 충실한 보장을 갖춘 상품"이라며 "장안 살림에 중심인 여성에 행복해지는 날까지 앞으로도 여성 특화적인 상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월 가계대출 전월比 3조4000억원↑

### 1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저금리·주택거래 호조 영향"

저금리 기조와 주택거래 호조로 2월 중 가계대출이 13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73조9000억원으로 지난달 보다 9조7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522조원으로 한달새 3조4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지난 1월(4000억원)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역대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2002년(5조8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조9000억원이 늘어 잔고는 3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187조6000억원으로 2월 중 4000억원 커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531조8000억원으로 5조원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 중 기업 대출은 연초 계절적 요인의 소멸 등에 따라 증가 규모가 전달의 8조3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계대출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77%로 전월(0.71%)보다 0.06%p 상승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0.95%)과 비교해서는 0.18%p 하락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월중 신규 연체발생액 1조6000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인 9000억원을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0.94%로 지난달보다 0.08%p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57%로 전월말보다 0.04%p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원화) 연체율은 0.45%로 0.02%p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7%로 지난달보다 0.10%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말 연체율은 전년말 대비 소폭(0.06%p) 상승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하락하는 등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조선업 등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감안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다인기자 alaw0203@

## LH, 경기·대구·부산서 전세임대주택 49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부산·대구 11개 시·군에서 전세임대주택 49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년 단위로 10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전세 외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지원한다. 임대료는 수도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정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고양 770가구, 남양주 500가구, 시흥 300가구, 성남 900가구, 안산 680가구, 용인 900가구, 하남 120가구를 공급한다. 대구에서는 북구와 중구에서 280가구와 70가구가, 부산에서는 진구와 해운대구에서 180가구와 200가구가 공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 1순위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경기도 8000만원, 대구·부산은 6000만원이다. 자기 부담 조건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경기도가 4월 6~17일, 대구·부산이 4월 13~17일까지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은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100%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 '공룡벤처' 옐로모바일 "올 亞시장 선도"

## 상반기 공격적 마케팅·하반기 투자집중 총력

종합 모바일 벤처기업인 옐로모바일이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하고 사업 내용 기업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가진 '옐로모바일 실적 공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가 스마토(SMATO) 시장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올해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플랫폼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토(SMATO)는 옐로모바일의 핵심 서비스인 ▲쇼핑(Shopping) ▲모바일(Mobile) ▲광고&디지털 마케팅(Advertising&Digital Marketing) ▲여행(Travel) ▲O2O(Online to Offline) 등 5가지 사업 영역의 첫 글자를 따 지칭한 말이다.

삼성SDS와 마이원카드, 다음커뮤니케이션 출신인 이상혁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분야별 선두 벤처기업을 주식 스와프 형태로 인수·합병(M&A)하면서 설립 2년여 만에 옐로모바일을 80여개 기업이 연합한 '공룡벤처'로 탄생시켰다.

옐로모바일은 현재 80여개 벤처기업과 연합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라이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쇼핑분야의 '쿠차' ▲모바일분야의 '피키캐스트' ▲광고 디지털 마케팅분야의 '카울리'와 '애드쿠아' ▲여행분야의 '여행박사' ▲O2O분야에서는 의료포털 '굿닥'과 병원 CRM(고객관리) '메디어츠' 등이 앱 다운로드 수, 방문자 수, 매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영역을 확장 중이다.

옐로모바일이 공개한 지난해 매출은 963억원으로 2013년(90억원)보다 크게 늘었지만 광고비 지출 등으로 82억원의 영업손실과 13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옐로모바일은 프로포마(Pro-forma) 기준 지난해 총 매출액을 2613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옐로모바일 연결 기준 43개 회사의 전체 매출을 합산한 것이다. 또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133% 증가한 5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옐로모바일은 올해 매출액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올해 예상 매출액은 5300억원이며 앞으로 계속될 M&A 매출을 더하면 6000억원이 이룰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쇼핑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 부문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하반기에는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혁 오른쪽 옐로모바일 대표가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가진 '옐로모바일 실적 공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옐로모바일 제공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IPO는 적절한 시기에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택하가 위해 코스닥과 나스닥 모두 고민 중"이라며 "SMATO사업 확장과 내실화가 더 중요한 것이어서 상장을 우선시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옐로모바일에는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기디언 유(Gideon Yu)'가 등기사외이사로 경영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IT 기업들의 CFO를 역임한 '기디언 유'가 옐로모바일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의 합류는 옐로모바일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넘버원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서 거듭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 예탁원, 국내 최초 ASIFMA 가입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7일 국내 금융기관 중 최초로 ASIFMA(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ASIFMA는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글로벌 은행 등 아시아 자본시장 내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 등 75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유럽금융시장협회(AFME)와 함께 글로벌금융신업협회(GFMA)의 3대 전략적 제휴 파트너 중 하나다.

이로써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세계 유수 금융기관과 함께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G20에서 논의 중인 중앙청산소(CCP)와 법인식별기호(LEI) 등의 이슈를 아시아 자본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ASIFMA 가입으로 예탁결제원이 추진 중인 예탁결제인프라 수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 역내 국제증권결제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의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보배기자

## BC카드, 가상 카드번호 '토큰' 구축

### 간편결제 확대

BC카드는 31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핀테크 결제 보안 솔루션인 'Token(안전카드번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카드번호와 연계된 별도의 가상 카드번호로 결제를 진행하는 보안시스템이다.

안전카드번호는 ▲결제 환경(온·오프라인) ▲가맹점 ▲접속 기기(PC,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사업 등에 따라 가상의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지갑 등에 저장할 수 있어 한번의 클릭만으로 결제를 가능케 한다.

현재 BC카드는 신세계 자체 결제 서비스(SSG Pay), QuickPay(KCP) 등과의 제휴를 통해 이 솔루션이 적용된 간편결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비자와 마스타 등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HCE 방식의 NFC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C카드 관계자는 "'Token'은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BC카드는 핀테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seriom@

조기상환율 100%!
첫스텝 80 시리즈 ELS
조기상환 평균수익률 5.93%
불패신화! 차원이 다른 안정성

신한금융투자, '첫스텝80 시리즈 ELS' 조기상환율 발표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한 '첫스텝80 시리즈 ELS'의 1차 조기상환을 평가한 결과 100% 조기상환이 이뤄졌다고 31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 기준금리 1% 시대, 증권주 빛보나?

### 전문가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상향

코스닥을 중심으로 올해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주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수요가 늘어나고,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과 증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증권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 들어 지난 27일까지 코스피·코스닥을 아우른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938억원으로, 전년 동월(5조5355억원) 대비 46.3% 증가했다.

주가도 연일 강세다. 증권사 주가 대부분이 연초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다. 지난 30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증권은 5만2300원을 기록해 연초 4만4600원 대비 17.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은 각각 28.21%, 20.86%, 39.80% 올랐다.

정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1%대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증권업종의 1분기 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증권업종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높였다.

장 연구원은 "6개 증권사(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 합계가 467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5% 증가해 시장 추정치를 대폭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증권사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해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와 ELS 수요 증가, 금리 하락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은 증권주에 좋은 현상이다"고 분석했다.

/정은미기자 ficit@

# 올해 연봉킹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145억7200만원>

###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공개
### 재작년 사상 최대 영업익
### 기업 오너 제치고 1위 등극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기업 오너와 샐러리맨 등 상장사 등기임원 중 작년 연봉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연봉킹 8위를 차지했던 신 사장이 1년만에 '연봉 킹'에 오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3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신 IM(IT·모바일) 부문 대표 사장이 지난해 145억7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 사장은 급여로 17억2800만원을, 상여로 27억3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기타 근로소득으로 91억1300만원을 수령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창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기업 오너를 제치고 신 사장이 연봉킹에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 IM부문이 재작년 24조96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성과급을 작년 1월 지급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DS(부품)부문 부회장은 보수로 93억8800만원을 받았다. 급여로는 20억8300만원을, 상여로 65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부근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은 급여로 17억2800만원, 상여로 31억1400만원 등 총 54억9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상훈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지난해 총 38억64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급여 11억2300만원, 상여 22억9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억4400만원이 포함됐다.

2013년 기준 연봉 140억원으로 '연봉킹'이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작년 총 57억2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현대차는 공시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18억6000만원을 받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급여 등으로 44억2300만원을 받았다. 구 회장의 급여는 34억7600만원이며 상여는 9억4700만원이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23억3200만원을 지난해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난해 총 22억1300만원을 받았다.

/송태종기자 sjh@metroseoul.co.kr

# 삼성 vs LG 진흙탕 싸움 '끝'

### '세탁기 파손' 등 5가지 법적 분쟁 종료

삼성과 LG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던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31일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두 그룹 간에 그동안 진행되던 3가지 사안, 총 5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IFA 전시회를 앞두고 삼성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삼성전자가 고소해 검찰이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LG전자도 삼성 측을 맞고소 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을 놓고 쌍방 고소해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온 사건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특허와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해 LG전자 측을 고소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삼성과 LG는 이날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대표이사 권오현)·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박동건)와 LG전자(대표이사 구본준)·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가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LG는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2014년 현대모비스 투명우산 후기 공모 당선작(김예준, 송계초등학교 3학년)

/현대모비스 제공

# "비오는 등굣길, 걱정 없어요"

### 현대모비스
### 전국 초등학생 대상
### 투명우산 10만개 증정

현대모비스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투명우산 10만개를 나눠주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비가 내리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오른다는 점에서 착안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0만개의 투명우산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900여개 초등학교에 총 50만개의 투명우산을 배포했다.

올해부터 현대모비스는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 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가장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우산 배포와 적극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투명우산이 필요한 사연을 적어 현대모비스·교통안전공단·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 접수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02-400-9275)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4일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경 현대모비스 홍보실장은 "투명우산 배포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는 힘들다"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용기기자 yunyo@

# LG화학 "中 편광판 시장 1위 굳힌다"

### 남경공장 1억 달러 투자
### 연 생산량 2400만㎡ 확대

LG화학이 중국 편광판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중국 1위 편광판 지위 굳히기에 나섰다.

LG화학은 4월부터 중국 남경공장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2400만㎡ 규모의 편광판 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는 42인치 TV 2400만대에 탑재되는 규모다.

중국 남경공장 편광판 공장

내년 상반기 중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증설이 완료되면 LG화학 남경공장의 연간 편광판 생산능력은 기존 4000만㎡에서 6400만㎡로 늘어난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 현지에서 편광판을 생산하는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증설하는 생산라인은 폭 2300㎜ 이상의 편광판을 생산할 수 있는 초광폭 라인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대 사이즈인 8세대 패널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편광판은 LG디스플레이(광주)를 비롯해 중국 양대 패널 제조사인 BOE(북경·중경·합비 등), CSOT(심천 등)와 CEC Panda(남경 등)에 공급된다.

LG화학은 2003년 중국에 후가공 공정 진출을 시작으로 2012년 남경에 편광판 일관생산 체계를 갖췄다.

현지화의 지속적인 증설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편광판 시장인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30%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준일기자 ransom@

# 효성, 3년간 150개 창업기업 지원

### 전북창조경제센터 가동

효성은 2017년까지 탄소소재·농생명·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150개 기업을 창업의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효성은 150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30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탄소산업 분야에서는 효성과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원천 응용기술과 R&D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500평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와 첨단재료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5개 국립·정부출연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한지·게임 등 ICT분야의 우수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을 지원키로 했다.

효성은 이를 통해 3년간 150개 기업의 신규 창업을 돕고 이 중 30개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탄소창업 50개 기업(강소기업 10개), 농생명 창업 70개 기업(강소기업 15개), 문화창업 30개 기업(강소기업 5개) 등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안정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단계별 맞춤지원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기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히 금융·세무 분야에서 창업 아이디어 분석과 창업절차 안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소연기자 1@soun@

# 친환경 열풍… '한라비스테온' 씽씽

##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공격적 인수전 빛 발해

### 전기차 수요 꾸준히 증가 6년새 140만대 늘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사진)이 인수한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타이어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은 그동안 정체된 타이어 시장을 넘어설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KT렌탈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선바 있다. 한국타이어의 성장정체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6조6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1998년 이후 16년간 지속된 매출 성장세가 꺾였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며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인 공조 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친환경차는 완성차 시장의 블루오션이다. 2008년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63만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자동차 수요는 2014년 2.2%(187만 5000대)까지 늘었다. 자동차 관련 예측기관들(IHS Automotive, LMC Automotive 등)은 공통적으로 2020년이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중 적어도 6%(600만대) 이상은 친환경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시스템이 주행거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가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연비가 약 3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공조 기술은 전기차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한라비스테온은 2014년 기준 글로벌공조시장 점유율 13.1%, 국내 공조시장의 52.5%를 차지하는 알짜 공조 기업이다.

중국 저가 타이어 업체의 빠른 성장으로 기업 확장 기회가 막힌 한국타이어가 자동차 관련 신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공조 부문에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친환경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확대정책도 조 사장에겐 호재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한라비스테온공조 전체 매출의 42.6%(2014년 3분기 누적 기준)를 차지한다. 친환경차 라인업을 2020년까지 22종으로 확대하겠다는 현대차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라비스테온공조의 영업이익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함께 3조9000억원을 들여 미국 비스테온으로부터 한라비스테온공조를 인수했다. 양사의 한라비스테온 지분은 69.99%로 한국타이어는 이 중 19.49%를, 한앤컴퍼니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타이어는 한앤컴퍼니가 보유지분을 팔 때 우선적으로 경영권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 조 사장의 지분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

/양소리기자 Ysound@metroseoul.co.kr

## 쌍용차 '티볼리' 해외시장 수출 시동 2000여대 선적 개시

쌍용자동차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의 첫 수출 선적 기념식을 31일 열었다.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열린 행사에는 최종철 해외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해외영업본부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적된 티볼리는 2000여대로 벨기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페루 등 유럽과 중남미 각국으로 수출되며 6월부터 현지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쌍용차는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올해 유럽시장 1만3500대를 포함, 총 2만5000여대의 티볼리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 현지 대규모 기자단 시승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유럽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1월 출시된 티볼리는 쌍용차의 첫 1.6ℓ급 소형 SUV다.

국내외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 해외대리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컨퍼런스와 해외 대리점 대회를 진행했다. /이승용기자

## | 현대·기아차 서울모터쇼 프리뷰 |

# "손 놓고도 안전 운전 할 수 있어요"

### '자율주행' 기술 공개 "2020년까지 상용화"

현대·기아차가 2020년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31일 인천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도심 서킷에서 서울모터쇼 프리뷰 행사를 열었다.

현대차는 다음달 2일 개막하는 서울모터쇼에 선보일 차량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차량 개발 방향 및 미래 스마트카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고속도로 상에서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을 양산화해 올 하반기 선보일 신차에 탑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신형 제네시스에 선행 연구용으로 탑재된 자율주행 기술인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을 공개했다.

현대차 연구원이 두 손을 놓고 자율주행을 시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부터 고속도로와 도심을 비롯한 여러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락 현대·기아차 총괄PM담당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기 혁신을 화두로 주행성능과 안전성 등 차량의 기본성능을 향상시킨 신차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연비 경쟁력 확보,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프리미엄 감성 구현 등에도 박차를 가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필기자 rumin@

## 현대차 '올 뉴 투싼' 누적계약 1만대 돌파 국내 목표 25% 달성

현대자동차 '올 뉴 투싼'의 누적 계약 대수가 1만대를 돌파했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계약에 들어간 올 뉴 투싼은 27일까지 총 1만300대가 계약됐다. 하루 평균 570대의 계약실적을 올린 셈이다. 현대차가 올해 세운 국내 판매 목표량인 4만2000대의 4분의 1가량을 이미 달성했다.

신형 투싼은 현대차가 2009년 이후 처음 내놓는 3세대 모델로, 유로6 기준을 맞춘 R 2.0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다운사이징 엔진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7단 더블 클러치(DCT)가 장착된 U2 1.7 디젤 엔진 모델로도 출시됐다.

현대차는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2015 서울모터쇼에서 투싼 차량만을 전시하는 '투싼 [illegible]'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판매량은 더욱 급증할 예정이다. /양소리기자

현대·기아차

## 2015 세계물포럼 의전차량 211대 지원

이정무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조직위 원장(왼쪽)과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이 차량 후원 협약식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기아차가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 의전·경호용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3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이정무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조직위 위원장과 현대차 박광식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후원협약식을 체결했다.

현대·기아차가 이번 포럼에 지원하는 차량은 ▲에쿠스 ▲K9 ▲제네시스 ▲K7 ▲그랜저 ▲노여비 ▲원티비 ▲K5 ▲쏘나타 ▲스타렉스 등 10개 차종 211대다.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장관급 인사 등 고위 관계자들의 의전·수행에 활용된다.

현대·기아차는 세계물포럼에 의전 및 경호용 프리미엄 차량과 행사용 일반 차량 등을 각국 정부와 행사 관계자들에게 기술력과 품질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지구촌의 물 문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공식 차량 후원사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4 인천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량을 지원한 바 있다. /이승용기자

# '꼴찌' LGU+ 약진… 이상철 리더십 통했다

**2010년 취임 후 LTE 올인 등 공격적 투자 행보**
**번호이동 가입자 꾸준히 증가…1·2월 나홀로 ↑**
**"최고의 LTE 품질·비디오 콘텐츠, 소비자에 어필"**

'만년 꼴찌' LG유플러스가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의 통솔으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가입자 증가세를 보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13년간 지켜온 점유율 50%가 붕괴된 가운데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가입자 유지 행보가 맞물리면서 이동시장의 공식처럼 인식되어 온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도가 서서히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 1월 취임한 이후 공격적인 투자 행보로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배경에는 이 부회장이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LTE 구축과 콘텐츠 확보를 지시한 것이 가입자 유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월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순증은 1만877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SK텔레콤은 3만8394명, KT는 2만6713명의 고객이 빠져나갔다. 1월에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만9387명, 3만8036명의 순감을 보였지만 LG유플러스는 2860명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도 이동3사 중 유일하게 번호이동 등에 가입자가 25만8222명이 증가했다. SK텔레콤은 22만7831명의 가입자가 줄었고 KT는 3만391명이 번호이동으로 빠져나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이동통신 조사업체인 오픈시그널이 LG유플러스 LTE 커버리지가 99%로 세계 1위라고 발표한 것처럼 경쟁사보다 가장 넓은 LTE 커버리지를 확보하면서 통화품질의 우수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3월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한 데 이어 2013년 7월 100% LTE 상용화, 2014년 1월에는 LTE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3밴드(Band) CA(Carrier Aggregation) 시연에 성공하는 등 통신시장에서 LTE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 이동시장의 독보적인 1위는 SK텔레콤이지만 최근 들어 철옹성처럼 유지돼 온 SK텔레콤의 50% 점유율이 무너졌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월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2835만6564명으로 전월대비 36만5019명(1.27%)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도 50.01%에서 49.60%로 내려앉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월에 1138만1348명(19.90%)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전월보다 시장점유율이 0.19% 올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출시되는 4월 가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예약가입이 진행되는 갤럭시S6는 LG유플러스 망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된다"며 "LTE 전국망 커버리지를 비롯해 다량의 비디오 콘텐츠를 보유한 만큼 갤럭시S6에 최적화돼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많은 콘텐츠를 확보한 것도 경쟁력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유플러스는 1만5000편 이상의 영화와 미드 등 무제한 감상 콘텐츠를 보유 중이다. 통신3사 중 가장 넓은 커버리지와 풍부한 비디오 콘텐츠를 다량 확보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지하기자 happy@metroseoul.co.kr

## 휴대전화 가입비 '0원'

**SKT 이어 KT·LGU+ 가입비 전면 폐지 동참**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KT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이 신규 가입시 부담하던 7200원의 가입비가 무료로 전환되며, 이날부터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적용된다.

KT 마케팅전략본부장 강국현 전무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과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부터 휴대전화 가입비 9000원을 완전 폐지한다. LG유플러스 김승환 요금기획팀장은 "가입비 폐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객들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꾸준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이번 가입비 폐지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최대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하기자

## "새 항공기 도입보다 재무 개선이 시급"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총**

아시아나항공은 31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오정로 본사에서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사진)

일부 주주는 "유가 하락으로 흑자를 기대했으니 작년도 당기 순손실 1000억원을 기록해 실망했다"며 "새로운 항공기 도입보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영목표를 자강불식으로 잡은 만큼 올해에는 이익을 창출해 주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재무제표 승인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5년 이사보수 한도액는 전년과 동일한 27억원으로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재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한창수 경영관리본부장(부사장) 등 4명이 재선임됐다.

한편 의장을 맡은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서울에어를 출범하고 기체정비 부품지원(MRO)사업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새로 출범할 저비용항공사 서울에어에 대해 "올해는 유가 환경과 시장의 코즈로 투자의 적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주주의 우려에 김 사장은 "저가항공사의 공급 과잉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어 "저가항공시장은 연평균 58%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국내 저가항공으로서 경쟁력을 키워 해외 LCC와 대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자 hm0108@

## LGU+, 현대H몰 '페이나우' 서비스 오픈

LG유플러스는 현대H몰 모바일과 PC 페이지에서 간편결제 '페이나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페이나우'는 국내 전체 카드 이용자의 약 90% 이상이 사용하는 7개 카드사의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LG생활건강, 신세계인터넷몰, 하프클럽, 교보문고, 한섬몰, ABC마트, 이니스프리, 위메프박스, 더페이스샵 등 10만여개의 국내 최다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대H몰 '페이나우' 서비스 오픈을 맞아 이날부터 현대H몰에서 '페이나우'로 첫 결제시 5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페이나우'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최초 1회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체 간편인증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U+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지하기자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현대H몰 모바일과 PC 페이지에서 간편결제 '페이나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제공

## '갤럭시S' 1500만 돌파
**SKT·삼성전자 'S어워드'**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S시리즈를 사용해온 SK텔레콤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S 어워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S어워드'의 'S'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공동 이니셜을 의미한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과 삼성전자 이상국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전무)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에서 SK텔레콤-갤럭시S 매니아 고객 7명을 초청해 갤럭시S6(엣지) 교환권, SK텔레콤 1년 무료통화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S어워드' 행사에 수상자로 초청받은 SK텔레콤 고객은 갤럭시S1~S5 시리즈 모델을 모두 사용한 고객(S매니아), 2010년 6월 출시된 갤럭시S1을 현재까지 사용중인 고객(S레전드), 가족 모두가 갤럭시S 시리즈를 사용 중인 고객(S 패밀리) 등 7명이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국내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위 사업자로서 국내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갤럭시S1~S5 시리즈 모델을 모두 사용한 SK텔레콤 고객 오상민씨(가운데)에게 갤럭시S6(엣지) 교환권, SK텔레콤 1년 무료통화 이용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SK텔레콤 제공

# 이마트, 어민·소비자 농락한 폭리장사

## 어려움 겪는 '참돔' 양식어가 돕겠다더니 생산원가 못 미치는 헐값에 구입해 판매

신세계(부회장그룹(회장 정용진) 계열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돕겠다며 최근 거문도 참돔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마트 측은 참돔의 머리와 뼈를 포함한 '한마리 활(活)참돔회 (350g 내외)' 상품을 구성해 2만원에서 100원 뺀 1만9900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어려운 참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한 행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이 참돔을 생산해 이마트에 납품한 전남 여수시 거문도 양식업자들의 말은 달랐다. 이마트로부터 받은 납품가가 산지 거래가는 물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이마트와 거문도 양식업자의 수산물 매매 기록장을 보면 이마트는 참돔 1kg을 한 때가 8000원에 구입했다. 이마트가 이를 가공해 만든 350g짜리 '한마리 활 참돔회' 패키지 1개당 판매가는 그 두 배가 넘는 1만9900원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1kg의 참돔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2~3년을 양식해야 한다. 사료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최소한 kg당 1만원은 받아야 본전은 나온다는 것이 현지 어민의 말이다. 이마트가 스스로 밝힌 참돔 생산원가도 kg당 9000원. 산지 거래가는 1만670원이다.

이마트 측이 '어민을 돕기 위한 판촉 행사'라는 홍보와 달리 어민들로부터 참돔을 산지거래가는 커녕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구입해 판매한 것이다.

더구나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kg당 1만원 안팎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거문도 참돔의 경우 도매상 등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납품받

이마트가 참돔을 구매한 가격을 보여주는 수산물 매매 기록장

았다. 이마트가 참돔 1kg으로 판매용인 350g짜리 패키지 1개를 만들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1 kg당 '판매가-납품가'는 1만1900원이다. 여기에 평균 10% 안팎인 폐사율과 수송비, 보관료, 포장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마트는 참돔 kg당 1만원 가까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거문도에서 참돔 양식을 하는 한 어민은 "나는 납품을 못하면 못했지 kg당 8000원에는 죽어도 팔지 못한다. 8000원에 참돔을 팔라는 것은 어민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라고 분개했다.

거문도 수협의 입장도 비슷하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참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마트가 대량 구매해 준 것은 고맙지만, 8000원 단가는 솔직히 겨자 먹기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의 보도자료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어시장에 팔리지 않는 참돔을 우리가 현금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어민들을 도운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어민 돕기를 가장한 폭리 장사는 이마트는 물론 최근 신선식품 할인 경쟁이 붙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마트 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비슷한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 농어가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같은 비도덕적인 영업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최은영기자 emus@metroseoul.co.kr·ilmbok@metroseoul.co.kr

**뚜레쥬르 '해남 감자 넣은 순감자' 시리즈 출시** 뚜레쥬르는 해남 감자를 넣은 빵 1종과 케이크 1종의 '순감자' 시리즈를 출시했다. 15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는 4월 4일까지는 가로수길점 앞에 흙을 깔고 감자밭을 마련해 고객이 직접 감자를 캐는 이벤트도 벌인다. /손진영기자 son@

# 봄 맞이 대청소 "칙칙 뿌려 슥슥 끝"

## 생활 속 먼지 제거 세정제로 간편하게

따스한 봄을 맞아 겨울 내내 쌓였던 집안 먼지와 때를 벗겨야 할 시점이다. 청소 요령과 청소 도구를 활용하면 집안 대청소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거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마주치게 되는 공간으로 가장 신경이 쓰인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커튼이나 카펫 등 소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교체한 커튼은 보관 전에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준다. 분무기로 커튼에 물을 뿌린 후 스팀을 씌운 페트병으로 쓸어내려도 된다. 세탁이 어려운 커튼은 뿌리는 방향소취제인 애경에스티 '홈즈 에어후레쉬 에어로졸'을 커튼 표면이 살짝 젖을 정도로 뿌려주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카펫은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준 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카펫을 털어서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다. 굵은 소금은 미세먼지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가구 먼지를 제거할 때는 물에 적신 신문지를 활용한다. 장롱 위 먼지 제거는 빗자루니 먼지 털이개에 헌 스타킹을 씌워 닦아내면 수월하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욕실은 여기저기가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욕실용 세제나 에탄올, 락스 등을 희석한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둔 뒤 물 청소를 해주면 곰팡이와 세균까지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의 'Mr. 홈스타 곰팡이를 부탁해 욕실전용'은 강력하게 분사되는 자동화된 에어로졸 타입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욕실 천장의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곰팡이의 재발을 방지해 준다. 주방 벽 타일의 찌든 때는 주방용 세제를 키친타올이나 화장지를 덮은 후 뿌리고 종이를 벽면에 붙인 채 충분히 불린 다음 닦아내면 된다. 또 가스레인지 표면에 눌러 붙은 때는 식용유를 마른 천에 묻혀 닦아주면 힘들지 않고 금세 지울 수 있다. 세정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

'메소드 다목적 세정제'는 욕실부터 주방 청소까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세정제로 식물성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az@

# 한국야쿠르트, 고정완 신임 대표 선임

한국야쿠르트가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고정완(52·사진) 최고운영책임자를 선임했다.

신임 고정완 대표는 1963년생으로 1991년 아주대를 졸업한 뒤 그 해 7월 한국야쿠르트에 입사했다. 영업을 시작으로 마케팅, 기획, 재무 등 주요 업무를 맡으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았고,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해 왔다.

고정완 대표는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사업을 실천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혁수 사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대외적인 업무를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헉! 초등학생 가방이 70만원

## '란도셀' 최저가는 34만원

70만원에 육박하는 초등학생용 가방이 등장,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31일 컨슈머리서치가 주요 초등학생용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고시된 가방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일본산 '란도셀'의 최고가가 69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방 브랜드의 최저가는 34만원으로 나머지 조사 대상 브랜드의 최고가 보다 비싼 수준이었다.

란도셀에 이어 두번째로 비싼 빈폴키즈 브랜드 키플링 가방은 가장 비싼 제품의 경우 31만8000원에 달했다. 가장 저렴한 제품도 15만5000원이었다.

빈폴키즈와 헤지스키즈도 10만원 대를 훌쩍 넘었다. 빈폴키즈의 가장 비싼 제품은 보조가방을 포함해 30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저가는 18만7000원이었다.

헤지스키즈도 최저가 10만8000원에서 최고가 13만8000원 선에서 판매 중이다.

/김수정기자 kaz@

MUSICAL

# LES MISERABLES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동의 창작뮤지컬

2015/4/1/수~4/30/목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 공연시간 목,금 19:30 | 토 14:00,18:00 | 일 15:00 | * 4월 29일(수) 19:30
(단, 월~수 단체 공연 진행)

❖ 티켓정가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공연문의 02)2049-4700~1 ❖ 단체문의 1566-2755

# 워킹맘 위한 행복직장 '매일유업'

⑥ 매일유업

maeil

매일유업(회장 김정완) 평택 중앙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정민 과장(41)은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매일유업이 출산 이후의 육아 문제로 퇴사를 고려한 여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과장은 "이 제도 덕분에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며 "다른 여성 직원은 재택 근무제를 활용해 회사 출근과 재택 근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해 육아와 직장생활 모두 잘해 내는 임직원들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워킹맘을 위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며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철학이 바탕이 됐다.

매일유업은 2009년 업계 최초 보건복지부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매년 변화, 발전시켜가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자녀의 출산 양육과 교육지원제도, 실시 '패밀리 데이'를 통한 정시 퇴근 유도, 수유편의시설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임신을 축하하는 '베이비샤워' 파티 개최,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여행 '베이비문' 등을 비롯해, 자녀 문화 캠프 개최, 출산 휴직에 이은 육아 휴직 확대 등 더욱 풍성한 가족친화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일유업 사내 여직원들이 '워킹맘 클래스'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 /매일유업 제공

## 업계 첫 가족친화 인증 …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 운영

특히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 근무제' 도입은 직원들에게 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프로그램이다. 유연근로제의 하나인 '시차 출퇴근제'는 출근 시간을 오전 7~10시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택근무제'란 출산후 1년간 집에서 일하는 제도로, 일주일에 1~2번씩 회사로 출근하면 된다.

지난해 4월부터는 법정기준일 보다 5개월 앞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하루 2시간 단축해 일을 할 수 있다.

또 출산 이후의 육아 문제로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한 일부 여직원들에게 '재택 근무제'를 도입해 회사 출근과 재택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베이비샤워' 파티와 '베이비문' 행사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 샤워' 파티는 상·하반기에 실시해 예비엄마들에게 출산 경험이 있는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는 선물을 증정한다.

나아가 매일유업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마더 컴퍼니' 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 임산부는 물론 고객까지 초청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문 육아 강좌, 부부가 함께하는 임산부 요가, 태담 편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일유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 제도 | 주요 내용 |
|---|---|
| 재택근무제 | 근로시간 유동적 운영 |
| 시차출퇴근제 | |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
| 베이비샤워 | 예비엄마에게 출산 경험이 있는 엄마의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는 선물 증정 |
| 패밀리 데이 | 둘째, 넷째 주 수요일 5시30분 퇴근 |
| 다자녀 가구 지원 | 둘째와 셋째, 넷째 축하금 · 분유 지원 |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여행 베이비문, 자녀 문화 캠프 개최
출산 휴직에 이은 육아 휴직 자동전환 및 기간 연장, 남성 직원 육아휴직제도

자회사인 제로투세븐도 가족관계 증진, 여가생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매일유업과 함께 극장을 통째로 빌려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관람하고 임산부의 날에는 패밀리세일을 진행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일유업의 가족친화경영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나이지리아, 콩고 등 여성 대표자 50여 명이 매일유업을 방문해 여성에 대한 지원현황을 묻기도 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확대로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와 애사심 고취 같은 목표들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부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출산장려기금을 주는 등 워킹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0083@metroseoul.co.kr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 "나와 회사와 가족이 함께"

매일유업은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임직원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임직원들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행복수준이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직원 가족도 최고의 대우 … 패밀리 데이 운영,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매일유업은 2009년 업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가족친화경영 인증 연장은 단순히 인증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개선 및 확장 등의 진화로 이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이 되면 매일유업은 유독 빨리 불이 꺼진다. 모든 임직원들이 오후 5시30분이면 퇴근해야 하는 패밀리데이이다.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제도다.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겨울시즌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 스키캠프 개최와 직원 스키장 할인은 진행했다.

매일유업의 가족친화경영은 회사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영역까지 넓혀가고 있다. 뮤지컬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200여장의 뮤지컬 공연티켓을 구매해 사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달 25일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이은결 더 일루전 공연에 수도권에 근무하는 워킹맘과 초등학생 자녀를 초청, 총 60명에게 공연관람을 하게 했다. 이 공연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매일유업의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을 주고 아이를 걱정없이 키울 수 있도록 분유를 지원하는 등 직접 혜택을 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 남성 직원의 육아 휴직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치를 높이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매일유업은 가족친화 경영의 폭을 확대하고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병립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 더 확하고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몰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0083@

# 오리진스 "공병 반납하면 선물 드려요"

**4월 지구의 달 기념 공병수거 캠페인**

### 화장품 브랜드 상관 없어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겐 6만 6000원 아이크림 증정

고기능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오리진스가 4월 지구의 달을 맞이하여 공병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와 상관없이 화장품 공병을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파우치를, 공병 지참 후 5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6만6000원 상당의 플랜트스크립션 아이 크림 정품을 증정한다.

플랜트스크립션 아이 크림은 잔주름 굵은 주름과 눈 주변의 처짐을 눈에 띄게 개선해주며 강력한 리프팅 효과까지 선사하는 제품이다. 공병 수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증정된다.

자연주의 브랜드 시초인 오리진스는 2009년부터 뷰티 업계 최초로 공병 수거 활동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7만 5000kg 의 화장품 패키지를 재활용해 오고 있다.

오염되고 황폐해진 땅을 나무가 숨 쉬는 건강한 땅으로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글로벌 플랜트 어 트리(Plant A-Tree)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지구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진스 홍보 담당은 "공병 수거 캠페인은 재활용되지 않고 쉽게 버려지는 화장품 용기를 고객을 대신해 수거하고 분리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구의 건강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지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의 철학이 녹아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자연주의 브랜드 오리진스의 2015년 공병 수거 캠페인은 전국 오리진스 매장에서 4월 한 달 간 펼쳐질 예정이다.

오리진스는 세계 곳곳을 탐험하여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자연 성분들을 발견하며, 각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효능을 과학의 힘으로 입증하는 '고기능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이다. 오리진스의 전 제품은 100% 자연 에센셜 오일 성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화학 성분이나 동물성 원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소비자 상담실 (02) 3440-2783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 서울역 1·4호선 ~ 공항철도 환승통로 개통… 10분 단축

서울역 공항철도와 지하철 1·4호선을 잇는 지하 환승통로(사진)가 지난 28일 개통됐다. 이로써 공항철도 게이트가 있는 지하 3층에서 환승통로를 통해 지하 1층 1·4호선 대합실로 곧장 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환승통로 개통으로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까지 환승시간은 종전 15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지하철 1호선까지의 환승시간도 12분에서 7분으로 줄었다.

또 그동안 환승이 단절됐던 1회용 교통카드의 환승이 가능해졌다.

주말이었던 28~29일 공항철도 이용객수는 하루 평균 4만1915명으로 환승통로 개통 전인 이전 주말(21~22일) 하루 평균 이용객 3만6219명보다 15.7% 증가했다.

한편 환승통로 개통 전에는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1·4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지하 3층 게이트에서 집표하고 나간 뒤 지상 2층까지 올라가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 1·4호선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선화기자 psh1980@

### 쉐라톤인천 '어스 아워' 캔들 디너 등 이벤트 다채

쉐라톤 인천 호텔은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어스 아워 2015'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전등 소등 행사를 비롯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8일 어스 아워 2015 행사에선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외부 조명을 소등하고 내부의 전력 사용을 최소화했다.

송도의 이국적인 야경이 돋보이는 이태리 레스토랑 베네(BENE)에서는 캔들 라이트 디너 프로모션과 함께 친환경 비누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카덱선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쉐라톤 텀블러를 구매하면 4월 한달 동안 하루에 한잔의 커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강강술래 고양농업기술센터와 MOU

## 로컬푸드 유통…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강강술래를 운영중인 전한(대표 최종만)이 로컬푸드 유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한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 강강술래 늘봄농원점에서 최종만 대표이사를 비롯해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권자선 소장, 농촌지도자고양시연합회 이창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한은 5월까지 약 50평 규모의 농축산물판매장 및 야외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장에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친환경 인증 등 철저한 검증을 받은 고양시에서 생산된 약 300여 종의 안심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종만 전한 대표는 "고양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소비활성화를 통해 고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종만 전한 대표이사, 농촌지도자고양시연합회 이창재 회장,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권자선 소장 /전한 제공

/김보라기자 bora383@

동국제약 '인사덴트' 론칭

## 치약·가글 등 토탈 구강케어 라인 선봬

인사돌플러스, 오라메디 등 구강질환 의약품 전문기업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토탈 구강케어 브랜드 '인사덴트'를 론칭했다.

'인사덴트'는 동국제약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구강케어 전문브랜드다. 신제품으로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먼저 출시했다.

'인사덴트 치약'은 지메이스엔(Z Mays, L-ETIZM) 성분이 들어있어 치은염과 치주염 등 잇몸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인사덴트 가글'은 인삼추출물, 상백피추출물, 감초추출물, 고삼추출물, 작약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등 한국인의 기호에 맞춘 한방 성분의 구강청결제다.

치약과 가글은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4월중에 GS홈쇼핑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스탠포드호텔 '시네마 패키지'

## 영화보고 휴식까지… 풀코스 데이트

스탠포드호텔 서울은 가까운 도심에서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며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패키지 2종을 선보였다.

라이프 에즈 시네마 패키지는 CGV 상암에서만 이용 가능한 2인 영화관람권과 미니팝콘 또는 CGV 골드클래스 2인 관람권과 웰컴 메뉴가 선택사항으로 제공된다.

객실 1박 에 조식뷔페 2인, 와인 & 치즈 룸 서비스, 몰튼브라운 바디세트가 기본 구성으로 포함된다.

가격은 CGV 영화관람권 제공 기준 22만3000원이며, CGV 골드클래스 관람권을 이용할 경우 27만5000원이다.

프러포즈 넥어 패키지는 고객이 준비해온 프러포즈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 CGV 상암 골드클래스 를 30분 기준으로 대여해 준다. 이벤트 영상 요청 시 스크린 상영이 가능하며 프러포즈 대관 상품은 사전 예약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가격은 프러포즈 대관 30분 기준 40만5000원이다. /김보라기자

# 갤럭시S6 vs G4 맞대결 주목…LG전략폰 가격↓

## 신제품 출시일 조정 등 정면승부

LG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전면전을 벌이는 선택을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의 출시일정에 맞춰 스마트폰 G3 Cat.6의 출고가를 3개월만에 추가로 내리는 한편 전략 스마트폰 G4의 출시일을 예상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오는 29일 출시한다.

이는 G3 Cat.6의 출고가 추가 인하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구형 단말기 소비가 증가추요를 공략함과 동시에 갤럭시S6로 이탈하는 소비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3의 히트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LG전자가 G4에 자신감을 보이며 갤럭시S6와 정면승부를 택했다.

LG전자는 다음 달 29일 전략 스마트폰 G4의 글로벌 6개국 공개행사를 순차 진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G4 공개행사를 진행하는 6개 국가는 미국(뉴욕), 한국(서울),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싱가포르(싱가포르), 터키(이스탄불)다.

LG전자는 공개 행사 직후 G4를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S6와 출시 간격이 3주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LG전자는 2분기 중 G4를 출시한다고 밝혀왔지만 4월 출시는 예상보다 이르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로 LG전자의 G시리즈 출시 시기는 지난 2012년 옵티머스G는 9월, 2013년 G2는 8월, 지난해 G3는 5월 첫 공개후 출시됐다.

아직 G4의 구체적인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G4는 'G플렉스'와 같은 곡면 디스플레이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10'을 장착하고 화면은 G3(5.5인치)보다 약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자인은 애플 아이폰6나 삼성전자 갤럭시S6의 메탈 소재와 달리 가죽 커버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출시하는 갤럭시S6는 진일보한 디자인과 무선충전, 삼성페이, 쿼드HD 수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등을 적용해 혁신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카메라는 손떨림을 방지하면서 1600만 화소로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내외 이동통신사들이 선주문한 물량만 2000만대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전략이 시장에서 통해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 싸이메라 '디지털 아이템샵 오픈 파티'

SK커뮤니케이션즈의 포토 SNS 싸이메라는 '디지털 아이템샵 오픈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싸이메라 출시 3주년과 디지털 아이템샵 오픈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1+1 프로모션' 컨셉으로 내달 20일까지 총 3주간 열린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모든 사용자들에게 기간에 따라 지정된 '기프트 아이템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아이템샵에서 스티커, 콜라쥬를 비롯해 각종 미용 아이템이나 효과 아이템 등 아이템 종류와 상관없이 유료 아이템을 하나만 구입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돼 '기프트 아이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기프트 아이템 패키지'는 신에서 유료로 판매 되고 있는 인기 항목의 아이템들을 선별해 재구성한 스페셜 패키지로 '스티커 패키지'와 '메이크업 패키지' 총 2종이다.

내달 8일까지는 스티커 패키지가, 9일부터는 메이크업 패키지가 제공된다. 각 기간마다 아이템을 하나 이상 구매하면 2종의 패키지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첫 유료 구매 시 자동 지급된다.

현재 아이템샵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출시돼 있어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 사용자만 참여 가능하다.

/이지은기자 heavenyy@

##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제치고 1위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누르고 글로벌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9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8.7%(매출 기준)로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재팬디스플레이(21억 달러, 18.7%)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3분기까지 20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삼성디스플레이는 3위(매출 17억6000만 달러)로 내려앉았다.

기존에 강점을 지닌 LCD패널 분야에서 고객사가 늘어났고,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원형 OLED 패널 분야도 판매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LG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한 애플 '아이폰6'의 폭발적 인기도 실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양성운기자

LG전자가 삼성역과 코엑스 연결 통로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터널'서 IPS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하며 IPS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디지털 미디어 터널은 LG IPS 사이니지 126대로 제작된 초대형 광고판이다. 디지털 미디어 터널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IPS디스플레이의 선명한 영상을 보고 있다.

## LG전자 "초대형 사이니지로 IPS 화질 알린다"

LG전자가 초대형 광고판으로 IPS(In-Plane Switching) 디스플레이의 뛰어난 화질 알리기에 나섰다.

LG전자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코엑스를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터널에서 IPS 디스플레이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이 광고판은 길이가 27m로 LG전자의 55인치 IPS 사이니지 126대로 제작됐다.

LG전자는 선명한 화질의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물,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보행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고판에 바닷속 장면이 상영될 때는 실제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영상은 6월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IPS 디스플레이는 178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색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강점이다. 보는 각도가 달라지더라도 색 변화가 거의 없다.

/양성운기자 ysw@

## SKT, 3밴드 LTE-A 기지국 2만6000식 전국 구축 완료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한 2.1GHz 기지국 2만6000식 구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고객들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전국 85개시의 주요 지역에서 3밴드 LTE-A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부천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카이스트, 울산대, 충북대 등 전국 272개 대학과 전국 지하철 등 데이터 사용이 활발한 지역에 2.1GHz 기지국을 설치해 고객들의 3밴드 LTE-A 서비스 사용 편의를 제고했다.

SK텔레콤은 8월까지 5000식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 국내 최대 3밴드 LTE-A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전국 곳곳의 빌딩 내부나 지하 공간 등에서도 4배 빠른 밴드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중계기를 대상으로 3밴드 LTE-A 지원을 위한 장비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이재영기자

SK텔레콤은 31일 기준 3밴드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한 2.1GHz 기지국 [illegible] 전국 주요 지역에 구축했다. SK텔레콤의 구성원들이 서울 을지로입구역에 2.1GHz 기지국을 설치하고 속도를 시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metro entertainment

# 사랑 연기? 마음에서 다시 끄집어냈죠

## 영화 '장수상회' 박근형

영화 '장수상회'(감독 강제규)는 50~60년대 서울 변두리의 풍경으로 막을 연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꽃을 들고 서 있던 소년은 버스에서 한 소녀가 내리자 그녀를 쫓아가 들고 있던 꽃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오래 전 소설에 나올 법한 순정 어린 장면이다.

그러나 박근형(74)은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이 첫 장면에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그의 첫사랑의 기억과 닮았기 때문이었다.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직접 그려서 만든 크리스마스카드를 주면서 '널 좋아한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카드만 손에 쥐고 도망치듯 나온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60살이 넘어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죠. 그때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가 '너도 아직 그때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정'은 적어 있습니다."

'장수상회'는 재개발을 앞둔 서울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첫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시 느끼게 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다.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커다란 행운이자 선물"과도 같았다. 박근형은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정도로 애착을 느꼈다.

박근형은 "70대의 사랑도 10대나 20대와 마찬가지로 조조하고 흥분되면서도 일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는 젊은 날 많은 작품을 하며 쌓아왔지만 제 마음 밑에 가라앉아 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배우로 한 시대를 함께 지내온 윤여정이 상대 역인 금님을 연기한다는 사실도 큰 안심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영화를 무난하게 연기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작품보다 더 치열하게 캐릭터를 연구하며 감정에 몰입했다. "연극학도의 마음으로 캐릭터를 세분화해서 연기 플랜을 세운 것은 영화에서는 '장수상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갈등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세세하게 해석을 해서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로 '로맨티스트'라는 별명을 얻은 박근형은 이번 영화에서도 낭만적인 면모를 마음껏 보여줬다. 성당에서 성칠과 금님이 함께 왈츠를 추는 신은 '장수상회'의 가장 예쁜 장면 중 하나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그는 "성당 안에서 춤을 추려니 죄송했다. 그런데 화면으로는 그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다. 특별한 장면이었다"며 웃었다.

오직 연기만을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이제야 철나는 배우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배우가 나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젊을 때는 자기 보람을 가지고서 혹은 이야기 끈으로서 연기를 하죠. 그렇게 여러 형태로 변화하다 보면 철학이 생기고 이것이 연기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50년은 지나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왔지만 실제로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꽃보다 할배'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아 전에 알지 못한 강한 힘을 느낀다는 박근형은 그러나 후배 배우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는 "가끔은 그 열정을 연기에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변함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연기에 대한 변함없고 확고한 생각 때문이다.

박근형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3대가 연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박근형의 아들은 배우 윤상훈이며 손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연기 공부를 하고 있다). "3대가 연기를 하는 집안은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무대에 선다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을까요? (웃음)"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첫사랑 설렘 다시느낀 70대 노인이야기**
**연기 50년 만에 철나는 배우된것 같아**
**아들·손자도 연기 3대 무대서는게 꿈**

star bag

### 결혼 1년 반만에 득남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득남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에 따르면 이민정은 지난달 31일 이른 아침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이병헌은 시난달 27일 금요일 귀국해 이민정의 곁을 지켰다. 소속사 측은 "이들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 생명에 대한 축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韓日 청춘스타 특급 만남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T.O.P)이 일본 배우 우에노 주리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한국 남자 우현과 일본 여자 쿠루카가 첫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는 이야기로 제목은 미정이다. CJ E&M과 일본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기업 아뮤즈가 기획하고 제작하며 올 하반기 다양한 플랫폼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3년 만의 내한 공연

세계적인 팝 밴드 마룬5(Maroon5)가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마룬5는 오는 9월 6, 7일 이틀간 각각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대구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내한은 지난해 9월 발매된 앨범 'V' 발매 기념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 故 보라의 유작 사진 공개

공효진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빅이슈' 커버를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화보는 지난 2013년 4월 세상을 떠난 포토그래퍼 고(故) 보라의 유작이다. 자연과 하나가 된 공효진의 편안한 모습, 그리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공효진의 수수한 일상을 담았다. 공효진은 KBS2 새 드라마 '프로듀사'로 안방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 "K팝에 푹~ 헨리와 콜라보 원해"

2010년 미국 NBC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선 무대에 한 여자가 등장했다. 바이올린을 끌어안은 채 수줍게 무대 위에 오른 린지 스털링(Lindsey Stirling)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힙합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올린과 현대음악이 만났을 때 바네사 메이(Vanessa Mae)를 주로 떠올린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리라 예상했지만 스털링은 달랐다. 그는 연주하는 내내 깜찍한 표정을 지으며 흥겨운 힙합 스텝으로 무대를 누볐다. 춤과 바이올린, 그리고 힙합의 신선한 만남이었다. 스털링은 그렇게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처음엔 재미있어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무대를 보고 웃는 게 좋았죠. 바이올린, 힙합, 일렉트로닉 등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접목했더니 다들 좋아하더군요."

2013년 8월 '슈퍼소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스털링은 지난달 첫 단독 내한공연을 열었다.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후 본지와 만난 스털링은 매우 들뜬 모습이었다.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다들 웃으며 환호해 줬어요. 한국 팬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가네요."

그가 바이올린을 처음 잡은 것은 6살 때다. 하지만 전문적인 클래식 코스를 밟진 않았다. 대학에서도 음악, 춤도 아닌 영화를 전공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총동원해 유튜브에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편집해 올리기 시작했다. 스털링이 의상과 안무, 퍼포먼스 등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털링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않는다. 평소엔 바이올린에 두 손이 묶여있지만, '섀도우(Shadow)' 뮤직비디오에선 그림자를 이용해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며 춤을 추기도 했다.

평소 힙합, 덥스텝 등을 즐겨듣는 그는 LMFAO, 피아노 가이즈, 펜타토닉스 등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했다. 뭐든지 좋아하면 즐기며 할 수 있다는 스털링. 그가 최근에 확 빠진 것은 바로 K팝이다.

"K팝에 푹 빠졌어요. 기회만 된다면 한국 가수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요. 특히 슈퍼주니어의 헨리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봤는데 무척 인상 깊어서 트위터로 컬래버레이션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아쉽게도 이번 내한 공연에서 스털링과 헨리의 협업 무대는 불발됐지만 그는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두 눈을 반짝였다.

"헨리는 꿈꾼이고 소녀시대와 빅뱅도 좋아해요. 공연하기 전엔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를 즐겨 듣는답니다. 다음엔 K팝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려 해요."

/김지민기자 sraekim@metroseoul.co.kr

# "생애 첫 스릴러 뜻깊은 작품"

## 심은경 주연 '널 기다리며' 촬영 끝 ·윤제문 김성오 함께

배우 심은경의 첫 스릴러 영화 '널 기다리며'(감독 모홍진)가 지난달 29일 3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널 기다리며'는 15년 전 연쇄살인범에 의해 아빠를 잃은 소녀와 그녀를 보살펴온 형사, 그리고 막 감옥 세상에 나온 범인 세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은밀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그리는 영화다.

'써니' '수상한 그녀' 등으로 폭넓은 연기력을 보여준 심은경은 이번 영화에서 아빠를 죽인 진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15년을 기다린 소녀 희주 역을 맡았다. 촬영을 마친 뒤 심은경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정말 욕심이 났다. 생애 첫 스릴러 영화라 뜻 깊은 작품이었다. 촬영하는 3개월 동안 캐릭터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당분간은 희주를 쉽게 못 잊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은경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는 윤제문, 김성오다. 이들은 각각 희주를 보살펴온 형사 대영 역과 15년 동안 출소를 기다린 연쇄살인범 기범 역을 맡았다.

윤제문은 "이번 영화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함께 연기한 배우, 스태프들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매 순간 재미있게 찍었기에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영화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성오는 "현장에서 하나가 돼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한 영화였다. 그래서 행복했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널 기다리며'는 후반 작업을 거친 뒤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 김재중·성민·최진혁, 나란히 입대

온라인 핫 이슈

1986년생 동갑내기 남자 스타 3인 JYJ 김재중, 슈퍼주니어 성민, 배우 최진혁이 어제 나란히 입대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각각 경기도의 한 사단, 경기도 부천 17사단 등지로 입소, 현역으로 복무한다. 2016년 12월 30일 전역 예정이다.

세 사람 모두 언론엔 비공개로 입소했다. 구체적인 입소 장소와 시간 역시 비밀에 부쳐졌다.

최진혁SNS 김재중SNS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김재중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김재중은 입소 날 오전 자신의 SNS에 "곧 빡빡이로 변신. 우리 팬 여러분에 많이 울고 웃고, 소중한 시간 보내고 간다"며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조용히 입대를 원한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터뷰 없이 차를 타고 부대로 들어간다. 차 안에서 팬들에게 인사했다"고 말했다.

최진혁은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서 마지막 스케줄을 소화하며 "2년간 숙성시켰다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입소 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머리를 잘랐다. 잘 다녀오겠다"며 짧은 머리를 공개했다.

/김지민기자

## 허각 데뷔 첫 소극장 콘서트

가수 허각(사진)이 다음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오월의 동화(同化)'로 올해 첫 콘서트를 소극장에서 시작한다.

소극장 공연은 한층 더 가까워진 무대와 객석의 거리만큼 관객과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는 의도에서 기획했다.

/김지민기자

# 따뜻한 애니 '홈' 북미 흥행 1위

## 네달 21일 국내 개봉

드림웍스의 신작 애니메이션 '홈'이 북미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홈'은 지난달 27일 북미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3708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1570만 달러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또한 27일부터 30일까지 주말 누적 수익 54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홈'은 새로운 집을 찾아 지구에 온 외계인 부브 종족의 사고뭉치 오에 당찬 성격의 지구 소녀 팁이 만나 벌이는 예측불허의 모험과 가슴 따뜻한 우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팝스타 리한나가 팁의 목소리를 연기했으며 짐 파슨스, 제니퍼 로페즈, 스티브 마틴 등이 더빙에 참여했다. 다음달 21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 법조 시사물 '공소시효' 귀환

### MC에 장현성 … 반응 따라 정규편성 결정

법조 시사물 KBS2 '공소시효'가 배우 장현성(사진)과 함께 돌아온다.

'공소시효'는 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과거 강력미제사건을 범죄심리 분석과 범죄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김상경의 진행으로 파일럿 방송됐다. 당시 제2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 불리는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번 특집 2부작 '공소시효'에서 장현성은 재판로 참여한 변호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잡히지 않은 범인 때문에 고통 받는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겠다는 각오다.

'공소시효'의 한 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에 "특집 2부작 시청률이나 반응을 보고 정규 편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는 내달 15일, 22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 정경호 "강민호에 반했어요"

### JTBC 드라마 '순정에 …'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 다뤄

배우 정경호(사진)가 순정에 반했다.

정경호는 JTBC 새 금토드라마 '순정에 반하다'에서 강민호 역을 맡았다. 세계 최대 금융사의 냉철한 투자 전문가다. 확장성 심근병증을 지닌 그는 갑작스런 발작으로 심장을 이식 받게 된다. 이후 회장님의 비서 김순정(김소연)만 보면 가슴이 뛴리는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는 인물이다.

지난달 31일 상암동 JTBC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정경호는 "전작 SBS '끝없는 사랑'에선 많이 맞고 때렸는데 '순정에 반하다'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행동을 하진 않는다"며 "다만 이식 받기 전후의 행동이 무심결에 이뤄진다. 강민호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유심히 봐달라"고 역할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어 "내가 의도해서 김순정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식 받은 심장이 움직일 뿐"이라며 "그 심장이 착한지 아닌지는 모른다. 다만 순정이를 좋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무엇에 반했냐는 질문에 "강민호에게 반했다. 계대 후 마음 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애정을 보여줬다.

'순정에 반하다'는 장기를 이식 받으면 이식해준 사람의 습성을 닮아가는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을 소재로 한다. 지난해 KBS2 드라마 '빅맨' 지영수 감독의 연출한다. 지 감독은 '빅맨'에서도 심장을 모티브로 극을 진행했다.

드라마는 '하녀들' 후속 작으로 오는 3일 오후 9시45분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 TV 하이라이트

### ◆ SBS '냄새를 보는 소녀'

오후 10시

박유천·신세경 주연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SBS 새 드라마 스페셜이 첫 방송된다. 냄새를 눈으로 보는 초감각녀 오초림(신세경)과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는 형사 최무각(박유천)이 펼치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로맨틱 코미디다. 최무각은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기본 3인분은 먹어줘야 하는 대식가로 중국집을 찾아 자장면 세 그릇과 볶음밥을 간단히 해치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 ◆ MBC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특집으로 이현도·조PD·이호가(FT아일랜드)·김풍이 출연한다. 소속사 대표 한성호의 출연 이유 SNS를 통해 지진 출연 요청을 했던 이홍기는 "용기는 얼굴만 한다"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 ◆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오후 10시

정마리(이하나)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에 있는 이두진(김지석)과 이루오(송재림)가 처음으로 만나 농구 대결을 펼친다. 김철희(이순재)의 행동을 의심한 김현정(도지원)은 김철희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재구성한 실제 범죄사건을 출연자들이 관련 인물이 돼 범인을 밝혀내는 '역할 수행 게임 추리 예능'이 첫 방송된다. 심리학을 전공한 배우 김지훈이 첫 게스트로 출연해 끈질기게 추궁하는 수사가백으로 활약을 펼친다.

/정리=이유리기자 yul@

*각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일 (수)

| 지상파 | KBS1 | KBS2 | MBC | SBS | EBS2 |
|---|---|---|---|---|---|
| 18시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00 KBS 글로벌 24<br>30 2TV 저녁 생생정보 | 10 생방송 오늘 저녁 | 00 생방송 투데이 | 10 [illegible]<br>25 영어동요 Pop! Pop! (재)<br>45 [illegible] (재)<br>50 [illegible] (재) |
| 19시 | 00 KBS 뉴스 7<br>30 [illegible] | 50 달콤한 비밀 | 15 불굴의 차여사 (93회)<br>55 MBC 뉴스데스크 | 20 달려라 장미 (81회) | 05 세계다큐 [illegible] (재)<br>20 스쿨랜드<br>35 [illegible] Family (재) |
| 20시 | 25 당신만이 내사랑 (93회) | 00 [illegible]<br>55 뉴스타임 | 00 장모님 [illegible] (82회) | 00 SBS 8 뉴스<br>55 [illegible] | 00 지식 [illegible] |
| 21시 | 00 KBS 뉴스 9 | | 30 리얼스토리 눈 | | 00 [illegible] (재)<br>30 다큐 오늘<br>40 EBS 스타 강사 특강 |
| 22시 | 00 [illegible]<br>55 순례 |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11회) | 00 [illegible] (6회) | 00 냄새를 보는 소녀 (1회) | 30 EBS 인문학 특강 |
| 23시 | 00 KBS 뉴스라인<br>40 [illegible] | 10 투명인간 |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 10 한밤의 TV연예 | 20 [illegible] 세계테마기행 (재) |
| 24시 | 50 [illegible] (재) | 00 스포츠 하이라이트<br>45 [illegible] | 25 MBC 뉴스 24 | | 00 [illegible]<br>30 [illegible] (재) |

| 케이블 | JTBC | TVN | 올리브TV | 내셔널지오그래픽 | 스포츠 |
|---|---|---|---|---|---|
| 18시 | 30 님과 함께 [illegible] (재) | | 30 오늘 뭐 먹지? (41회) | 30 TV 동물농장 [illegible] | 18:30<br>◆ 프로야구 |
| 19시 | 40 [illegible] (110회)<br>55 JTBC 뉴스룸 | 00 [illegible] (1회) | 00 올리브쇼 2015 (1회) | | KIA vs SK (SPO TV, SPO TV+)<br>롯데 vs LG (MBC SPORTS+, SPO TV2) |
| 20시 | 50 JTBC 뉴스룸 | 40 삼총사의 고소한 [illegible] (12회) | 00 오늘 뭐 먹지? (재)<br>00 오늘 뭐 먹지 (재) | 00 [illegible] 1부<br>[illegible] | 두산 vs 한화 (KBS CNBC, XI SPORTS)<br>삼성 vs KT (SKY SPORTS) |
| 21시 | 40 유자식 상팔자 (85회) | 40 [illegible] (1회) | 00 [illegible]<br>30 [illegible] (2회) | 00 [illegible] | 넥센 vs NC (KBS N SPORTS) |
| 22시 | | | 00 올리브쇼 2015 (1회) | 00 [illegible] (1회) | 19:00<br>◆ 프로배구 [illegible] 3차전 |
| 23시 | 00 크라임씬 2 [illegible] (1회) | 00 수요미식회 (11회) | 50 [illegible] (1회) | 00 [illegible] | OK저축은행 vs 삼성화재 (KBS SPORTS) |
| 24시 | 2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illegible] (3회) | 20 [illegible] (1회) (재) | 00 2015 [illegible] (3회) | 00 [illegible] | |

# '김기태 용병술' 빛 발하다

## KIA 최희섭·이범호 베테랑 부활…시즌 초 신바람

김기태 KIA 감독이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LG와의 개막 2연전을 승리한 뒤 선수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팀당 144경기 중 2경기만 끝났지만 KIA 타이거즈는 개막 2연전 승리로 신바람을 냈다.

김기태(46) KIA 신임 감독은 "초반 14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며 "개막 2연전 승리는 우리 팀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여기는 김 감독이 새롭게 발굴한 '키스톤 콤비' 최용규(2루수)와 강한울(유격수)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 준 것도 있지만, 역시 베테랑 최희섭과 이범호가 중심을 잡아 준 것이 컸다.

김 감독은 30대 중반인 이들을 과감하게 5번과 6번 타순에 배치했다. 이범호는 LG 트윈스와의 개막전에서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7회말 균형을 깨뜨리는 중월 솔로포를 날렸다. 이후 KIA는 흔들리는 소사를 공략해 3점을 뽑으며 승리를 굳혔다.

2차전에서는 최희섭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최희섭은 4-6으로 뒤진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정찬헌으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뽑아냈다. 2013년 7월 26일 마산 NC 다이노스전 이후 611일 만에 1군 무대에서 쏘아 올린 홈런포다.

최희섭의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KIA는 9회말 브렛 필의 끝내기 투런 홈런으로 7-6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야구 전문가들로부터 '하위권 전력'이란 평가를 받으며 시즌을 시작했던 KIA는 한동안 부진했던 최희섭·이범호 등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신구 조화를 이루어 냈다. 베테랑의 활약에 신인들은 힘을 냈고, 마무리 보직을 맡은 윤석민은 뒷문을 잠어 잠그며 김 감독을 흐뭇하게 했다.

현재 KIA는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신뢰가 한층 살아있다. 선수들과 친화력이 뛰어난 김기태 감독의 용병술이 점차 빛을 발하는 분위기다.

/김민준기자 mikim@metroseoul.co.kr

# 우리카드, 프로배구 손 뗀다

## KOVO서 구단 위탁관리 5월 말까지 운영안 마련

우리카드가 2년 만에 남자 프로배구단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카드를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5월 말까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OVO는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우리카드로부터 더는 구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KOVO는 올 시즌이 모두 끝난 뒤인 4월 6일 우리카드를 회원사에서 임의 탈퇴시키기로 했다. 우리카드 구단은 인수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KOVO 위탁관리 체제로 운영된다.

KOVO의 구단 위탁관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우리캐피탈을 모체로 창단한 드림식스가 2011년 모기업을 인수한 전북은행에서 배구단을 포기한 뒤 새 주인을 찾지 못하자 KOVO가 구단을 맡아 두 시즌 동안 운영했다. 이후 드림식스의 연맹 관리 체제가 끝난 뒤 이사회는 '더는 연맹 관리구단 체제로 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그럼에도 이번 이사회에서 다시 위탁관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현 7개 구단 체제가 6개 구단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연맹이 운영자금을 대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면서 연맹이 내놓은 위탁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면 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우리카드 선수들은 특별 드래프트 등을 통해 기존 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새 소속팀을 찾지 못하게 되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KOVO는 일단 네이밍 스폰서십 등을 통해 우리카드 구단 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카드 인수 직전까지 갔던 MG새마을금고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MG새마을금고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배구단 인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호기자 solanin@

# 코리안 女골퍼 "이제는 메이저다"

## 김효주·박인비·최나연 등 2일 개막 ANA 출격

박인비 김효주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여자골퍼들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 출격한다.

지난달 30일 끝난 KIA 클래식 우승은 미국의 베테랑 크리스티 커에게 내줬지만 막강 전력의 한국여자골프 군단은 오는 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50만 달러)까지 상승 기세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메이저대회다. 올해부터 일본항공사인 ANA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대회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 선수들은 2004년 박지은(은퇴)이 처음 우승한 이후 2012년 유선영(JDX), 2013년 박인비(KB금융그룹)가 챔피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112명의 출전 선수 중 한국 국적의 선수만도 20명이 넘는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를 비롯해 최나연(28·SK텔레콤), 김효주(20·롯데), 김세영(22·미래에셋), 양희영(26)이 출격한다. '맏언니'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는 지난주 KIA 클래식 3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64타)을 세우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뉴질랜드 교포이자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8)도 이름을 올렸다.

/조현정기자

# 추신수 침묵 언제까지…

## 캔자스시티전 무안타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연일 침묵하고 있다.

추신수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헛스윙 삼진을 세 차례나 당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185에서 0.167(36타수 6안타)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지난달 16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뒤 왼쪽 팔 삼두근 통증 때문에 줄곧 지명타자로 나서다가 전날 LA 다저스와의 경기부터 우익수로 복귀했다.

이날 추신수는 팀이 0-7로 끌려가던 1회 2사 1, 2루에서 상대 선발인 왼손 투수 제이슨 바르가스와 첫 대결을 벌여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텍사스가 솔로 홈런 네 방으로 4-7까지 추격한 뒤 3회 1사 후 주자없는 상황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5-8로 뒤진 5회와 7-9로 따라붙은 7회 역시 삼진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결국 캔자스시티에 7-11로 졌다.

/김민준기자

# 메시 1분기 최고 공격수

## 17골 맹활약…호날두 29위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사진)가 올해 1~3월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공격수로 뽑혔다.

31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1분기(1~3월) 포지션별 우수 선수 순위'에 따르면 메시는 정규리그에서만 17골을 뽑아내며 공격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맞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이 기간 6골에 그치며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시의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네이마르가 4위와 12위에 랭크됐고, 2위는 분데스리가에서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는 아리언 로번(바이에른 뮌헨)이 꼽혔다.

CIES는 통계 전문업체인 옵타스포츠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능력을 6개 분야(득점 기회 창출, 태클, 볼 배급, 슈팅, 공격기여, 수비기여)로 세분화해 평가, 이번 분기 순위를 뽑았다.

/김민준기자

# '금고지기' CJ 무죄 뒤집나

## 檢, 해외도피 김모씨 송환 위해 형사 공조 중
## 법조계 "603억원 횡령부분 판시 달라질수도"

검찰이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해외로 도피한 김모(53) CJ제일제당 중국법인 부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해외 경찰과 공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는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맡은 '금고지기'로 지목된 인물이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검찰 관계자는 "김모씨의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형사 공조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고교 후배인 김씨는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제일제당 경리부와 CJ 회장실장(비서실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국총괄 부사장발령 때까지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이 회장의 또 다른 '금고지기'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9) 전 부사장과 함께 비자금 규모와 용처 파악 등을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또 김씨는 2013년 5월 21일 검찰이 CJ그룹 압수수색에 나서기 이틀 전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드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중국 공안과 형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 기소중지 조치했다.

김씨가 조만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의 비자금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김씨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된다면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법정에 세운다면 이 사건의 횡령 부분에 대한 판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회삿돈 718억원(국내법인 603억원, 해외법인 115억원)을 빼돌리고 251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다만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해양안전 훈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31일 전남 완도항에서 2015년 해양안전 종합훈련을 했다. 대형 여객선 해상충돌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해양경찰관 등이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선준기자

**벚꽃 천지 진해 경화역** 제53회 진해 군항제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가지 벚꽃의 80% 가량이 활짝 폈다. 벚꽃 군락지중 한곳인 경화역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거나 벚꽃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만우절 112 장난전화하면 엄벌"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제법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 올 수능 난이도 작년과 비슷

## 교육부-한국교과평가원 개선안·시행계획 확정

올해 11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고 영어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줄어든다.

또 최근 2년 연속 불거진 출제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작년 12월 구성한 수능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4.30%, 영어도 만점자 비율이 3.37%를 각각 기록하면서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수능이 '물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쉬웠던 것으로 미뤄볼 때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라는 말은 최소한 '어렵지 않게 출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BS 교재와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지문의 활용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의파악'(목적, 주장, 주제 찾기)과 '세부정보'(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를 묻는 문항에 한해 과거처럼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 아니라 주제, 소재는 유사하지만 다른 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작년 수능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 중 EBS 교재의 똑같은 지문을 사용한 문항은 모두 8개였다. 따라서 올해 수능은 이에 해당하는 7~8개 문항이 작년과는 달리 EBS 교재를 변형시킨 지문이 나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EBS 연계방식을 바꿔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쓸 방침이다.

/김하늘기자 kx adcx@